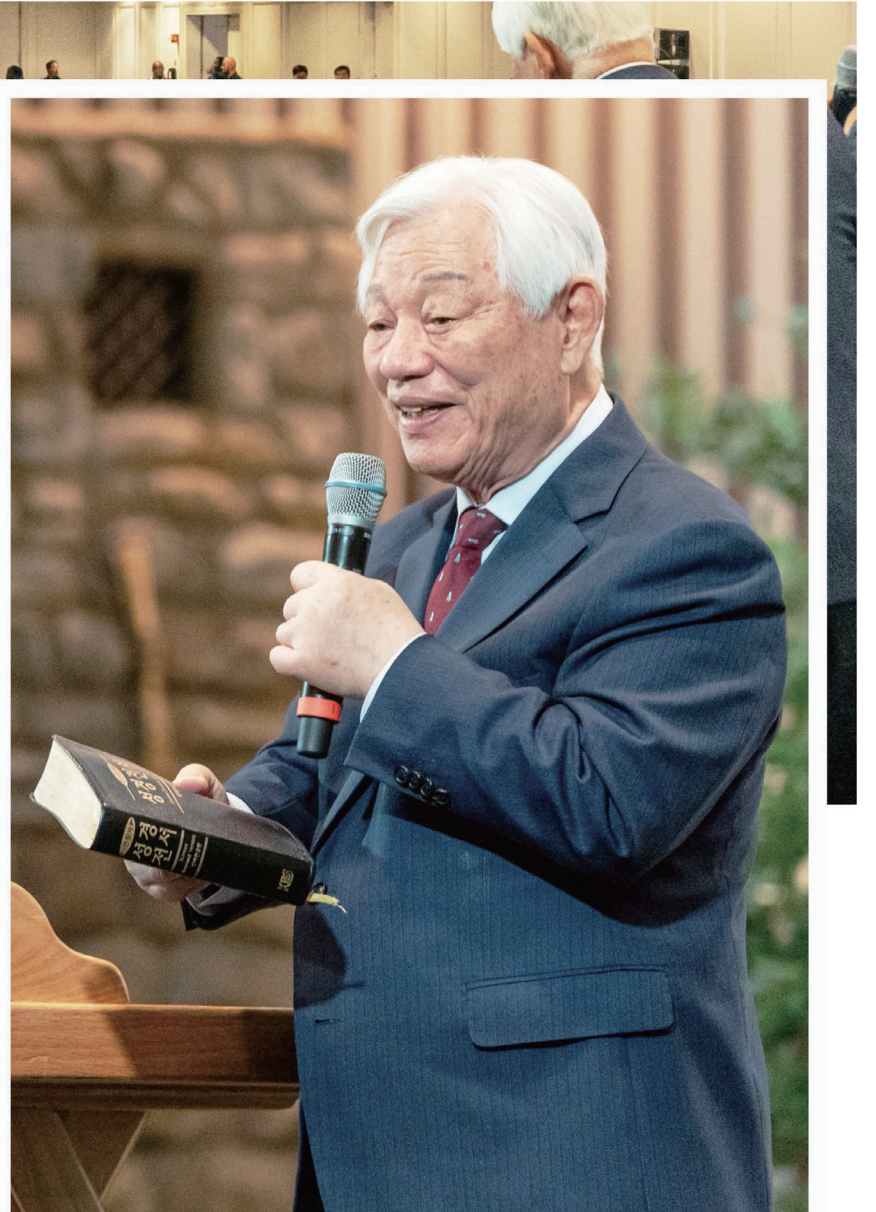


박옥수 목사, 미국서 복음 연대로 세계 교회 결집

청년 고립, 교육 격차, 사회 불신.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통된 위기다. 이러한 질문 앞에서 종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한 국제적인 시도가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미국 뉴저지에서 열렸다. '기독교지도자연합(CLF) 월드 컨퍼런스'에는 전 세계 1천500여명의 목회자들이 모였다. 이들은 단순한 종교 내부의 논의를 넘어 복음을 중심으로 사회와 세계를 연결하려는 실질적인 시도를 이어갔다. /편집자 주



미국 뉴저지 파크호텔에서 열린 CLF 월드 컨퍼런스에서 박옥수 목사가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1천500여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석해 신앙과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뉴욕에서 열린 국제 기독교 행사가 종교의 경계를 넘어 현대 사회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기독교지도자연합(CLF, 대표 박옥수)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미국 뉴저지 파크 호텔에서 'CLF 월드 컨퍼런스'가 열렸다.

박옥수 목사의 사역에 깊이 공감하고 복음의 사회적 확장을 함께 고민하는 전 세계 1천500여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미국 14개 도시에서 열린 200여 회의 사전 세미나와 프로그램을 통해 CLF의 철학과 비전에 매력을 느낀 이들은 뉴욕에 집결해 교류의 장에 함께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청년 고립, 공동체 해체, 교육 불평등 등 전 세계가 직면한 사회 문제를 중심으로 종교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조명했다.

CLF는 그동안 전 세계에서 펼쳐온 교육·청년·보건 분야 사역 사례를 공유하며 이 활동들이 인권 회복과 지역사회 재건에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남미 지역의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아프리카 청소년 교육 사례는 실질적 변화의 예로 소개되며 유엔 외교관들 사이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 유엔, 복음 기반 청년 교육 주목

가장 눈길을 끈 인물은 유엔 주재 각국 대사들과 함께한 청년 교육 간담회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케냐·잠비아·남아공 등의 외교관들은 복음 기반 청년 교육 프로그램의 사례와 효과를 직접 확인했다.



CLF 2025 월드컨퍼런스

14개 도시·200회 지역 행사로 교류 기반 조성

청년 고립·교육 격차 해소 복음 기반 대안 모색

유엔 외교관 청년교육 성과 주목·현장 사례 공유

마스터 클래스 등 리더십·가정 회복 등 주제 확장



CLF측에서는 교정시설, 경찰, 군대, 대학, 기업 등과 협력한 교육 사례를 소개하며 IQ·EQ·SQ의 균형이 인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특히 “도전, 변화, 결속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기반으로 청년의 자존감과 사회 적응력을 회복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케냐 내 아카데미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25%에서 크게 상승한 사례를 설명하며 자영업 창업 사례와 고용 창출 효과도 함께 공유돼 실질적 가능성을 확인했다.

잠비아의 치밤바 카냐마(Chibamba Kanyama) 대사는 “젊은이들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것을 잃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청년 세대의 역동성에 종교가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임파워먼트 토크·마스터 클래스…현대 사회 기독교 역할 의미 논의

이번 컨퍼런스에서 진행된 임파워먼트 토크와 마스터 클래스는 CLF가 단지 기독교 관계자의 교류를 넘어 사회 문제에 신앙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를 보여준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었다.

임파워먼트 토크에는 미국, 멕시코, 이스라엘 등지에서 온 대형 교회 목회자와 교단 대표 18명의 저명한 인사들이 참여해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멕시코 출신의 아르만도 알두신(Armando Alducin) 목사(세상을 위한 새 생명 교회)는 성경의 세계관이 오늘날 인류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조명했으며 텍사스 안디옥 침례 교회의 존 아돌프(John Adolph) 목사는 우정(friendship), 교제(fellowship), 리더십(leadership)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동체 회복의 필요성과 신앙의 관계성을 강조했다.

마스터 클래스는 사회와 교회가 맞닿는 다양한 경계를 주제로 8개 세션으로 구성

됐다. ‘가정 중심 회복’, ‘AI시대와 인간 영성’, ‘교회 청년 리더십’ 등 주제별 세션마다 발표자와 목회자, 청년 담당자들이 구체적인 현장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뉴욕 교육청 소속 케리 브렛 에스티는 “가정 내 단절된 대화, 세대 간 이해 부족은 단지 심리 문제가 아니라 가치 교육의 부재에서 온다”며 “복음 기반 교육은 소통을 회복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공동체 기반 교육 윤리와 세대 간 신앙 전승 등도 세션에서 논의되며 신앙의 사회적 역할을 조명했다.

◆ 주 강사 박옥수 목사 ‘예수로 사는 삶 강조’…회복의 길 제시

주 강사인 박옥수 목사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우리는 죄인에서 벗어나 의롭게 됐고 죄의식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목회자들에게도 “자신의 힘이 아닌 예수로 사는 삶”을 제안했다.

이는 스스로 정한 한계를 넘어서 예수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메시지였으며, 동시에 과거의 실

수나 죄책감에 얽매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과 회복의 길을 제시하는 내용이었다.

참석자들은 “죄책감으로 신앙과 삶이 무너졌던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답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일부 목회자들은 “이 메시지를 교회로 돌아가 전하고 싶다”고 밝혔고 CLF는 단지 교단 간 교류를 넘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회복을 이끄는 플랫폼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줬다.

◆ CLF 국제 고문단 위촉…국제 협력 체계 구축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CLF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나갈 국제 고문단도 새롭게 위촉됐다.

멕시코의 아르만도 알두신 목사와 베네수엘라의 앙헬 마에스트레 목사는 고문 모임을 통해 “우리는 교단과 국가를 넘어 예수의 복음 안에서 하나”라고 밝히며 향후 교육, 청년 사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글로벌 협력 모델을 구체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행사 이후에는 청년 리더십 아카데미 확대,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 보급, 문화·미디어 사역 확장 등 다양한 구상이 논의되고 있다.



CLF 월드 컨퍼런스에 참석한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심도 깊은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홍보 부스에서 교류하는 참석자들.



CLF 월드 컨퍼런스 마지막 날, 새로 위촉된 국제 고문단과 주요 인사들이 함께 단체사진을 촬영했다.